

발산마을 예술촌 '매력 발산'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별별잡기'의 첫번째 작품으로 지난 10월 설치된 양재영 작가의 '별고래와 함께 매력발산! 발산마을여행'.

3일 오전 찾은 발산마을(광주시 서구 양3동)은 곳곳에 자리잡은 미술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의 대표적 인구공동화지역인 발산마을은 지난해부터 마을미술 프로젝트(발산마을프로젝트·대표 신호윤)를 시작하며 예술마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3동 주민센터에서 도로를 건너 약 200m쯤 걷다 보면 왼편으로 고래를 타고 있는 펭귄과 북극곰이 보인다. 손에 별을 쥐고 'Save the Dream'이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양재영 작가의 '별고래와 함께 매력발산! 발산마을여행' 작품이다. 양3동 공공입 어린이집 맞은편 벽에 부착된 이 작품은 동물 외에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오정, 손오공 등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마치 발산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는 듯했다.

발걸음을 옮기면 강동호 작가의 '별을 찾아서'를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고 우주선이 날아가는 모습이다. 강 작가는 발산마을의 지도를 기본형태로 마을 이야기와 별을 찾아 떠나는 우주선을 형상화했다. 별은 노랑, 파랑, 초록, 빨강 등 알록달록한 색깔로 보는 즐거움을 준다.

강 작가의 작품에서 마을 안쪽 삼거리로 보면 왼쪽 벽 난간 뒤로 어린이가 3명이 갸아지를 데리고 어딘가를 보고 있다.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실제 사람 크기 조형물이었다. 신호윤 작가의 '엄마 언제와, 누나 빨리와' 작품이다. 발산마을은 70년대 후반 전남방직과 일산방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

'미술 프로젝트' 마을 곳곳에 예술 조형물 작품 설치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작가 4명 29일까지 개관전



지난해 설치된 박상현·이성웅의 '별집'

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이 시절을 회상하는 작품으로, 일터에 나간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전남방직 쪽을 바라보는 애절한 마음이 전해진다. 삼거리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최윤미 작가의 '발산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벽을 따라 약 50m 길이의 이 작품은 발산마을의 역사를 나열했다. 일을 끝마친 사람들이 뽕뽕다리(현 발산교)를 건너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귀 뒤에 펜을 꽂은 작가가 별이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발산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별이 떨어져 땅에 박혀있는 모양의 대형 설치작품이 눈에 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높이 약 3m인 이 작품은 마을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최윤미 작가가 따르면 최근 양3동 어린이집 원생들의 소풍장소로 즐겨 이용된다고 한다. 작품 주위에 심어진 해바라기 등 각종 꽃들은 마을주민들의 솜씨다. 최 작가는 야간에는 조명

도 켜져 더 멋있다고 귀뻐했다.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디선가 드릴, 톱질소리가 들린다. 이날 오후 5시 개관을 앞둔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약 10여년간 방치됐던 100평 규모의 가구창고를 재활용한 이 공간은 작품전시, 카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개관전은 4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8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래는 타라재이(본명 송재영), 이세현, 박세희, 박성완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해 발산마을을 주제로한 사진, 회화 등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이후부터는 이세현(1부, 10~15일), 박세희(2부, 17~22일), 박성완(3부, 24~29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발산마을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마을미술 프로젝트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작품 5점을 설치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별이 뜨는 발산마을' 두번째 이야기 '별별잡기'를 주제로 공공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월까지 강동호, 구현주, 박상현, 백상욱, 신호윤, 이성웅, 전준모, 최윤미 작가의 작품 6점이 더 설치될 예정이다.

최윤미 작가는 "지난해에는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 뛰어들어'며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음모수도 사다주며 격려해준다"며 "생활주거지는 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70-7677-9220.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유의 나무 한 그루' 제15회 김남주문학제 7일까지 그림전시·포엠 콘서트

해남 출신 김남주(1945~1994) 시인을 기리는 제15회 김남주문학제가 열린다. 김남주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 문화예술재단, 광주전남작가회의, 해남민예총 후원으로 7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문학제는 포엠콘서트, 결계시화전 등 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지난 2일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자유의 나무 한 그루' 주제로 열리고 있는 추모 결계 시화전은 시인의 시를 주제로 한 시와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7일 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는 '김남주 포엠 콘서트'가 개최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는 영상시 시정을 시작으로 춤공연, 시낭송이 예정돼 있다. 또한 김남주 시를 함께 읽고 영상과 노래로 회고하는 '읽는 김남주'도 펼쳐진다. 김남주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운(해남고 교사) 회장은 "이 시대에 김남주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단지 그를 '기념비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혁명의 통일을 운명으로 실천했던 한 인간의 순결한 고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8602-297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삼락서예원 필우회전



창강 정재호 작 '柔能制剛(유능제강)'

5~11일 메트로갤러리

삼락서예원(원장 이규형) 필우회(회장 정재호)가 5~11일 메트로갤러리(금남로 4가역)에서 '제38회 필우회전'을 연다.

지난 1977년 송파 이규형 원장의 제자들로 구성된 서예단체 '필우회'는 매년 한차례씩 정기 회원전을 열고 있다. 회원은 100여명에 달하며 전남도전, 광주시전,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추천,

초대작가 30여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이 원장, 정 회장을 비롯해 유현 김일환, 경재 조옥희 등 69명의 회원이 전서, 예서, 해서, 행서를 비롯해 수묵화 등 고전을 먹의 오채(五彩)와 다양한 운필(運筆)로 재해석한 1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작품 옆에 한문을 번역한 해설문을 함께 전시해 작품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석문학상, 백무산 시인 '폐허를 인양하다'

제17회 백석문학상 백무산(사진) 시인의 '폐허를 인양하다'가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 백석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갖고 백무산 시인을 백석문학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석문학상은 백석(白石)의 뛰어난 시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고(故) 자야(子夜, 본명 김영한) 여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1997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장비가 주관해오고 있다. 본심 심사를 맡은 백낙정평론가, 김사인·최정례 시인은 "백무산 시인이 잔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혹은 그곳에 발 딛고 무심한 듯 생각



을 펼쳐 보일 때 문득 그것들이 현실 너머의 장면처럼 느껴진다"고 평했다. 백무산 시인은 1984년 '민중시' 1집에 '지옥선' 등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민국의 노동자' 등을 펴냈다. 이산문학상, 만해문학상, 오장환문학상, 임화문학예술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5일(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전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